

농업 이민 일본인 자녀 나주 정착사 번역본 출간

나주문화원, 47년만에 '남평시대' 출간

일제시대 남평 역사 기록 자료 70년대 말까지 매년 남평 방문

일제강점기 농업 이민으로 나주 남평에 정착했던 일본인 자녀들의 소회를 담은 책이 한글로 47년 만에 재출간됐다.

나주문화원이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나주 남평군으로 농업이민을 온 일본인 자녀 중 남평심상고등학교(현 남평중학교)에 다닌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남평시대' 번역본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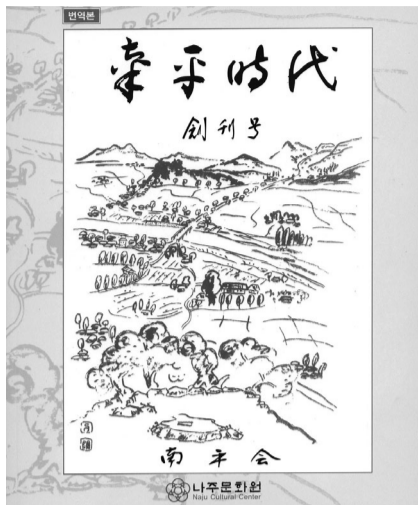
나주문화원이 남평심상고등학교에 다닌 일본인 학생들이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후 1975년 남평회를 조직하고 당시의 사진과 소회를 담아 출간한 책을 한글로 옮긴 것.

남평회는 1945년 일본으로 돌아간 남평심상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일본 현지 친목단체로 1974년 첫 모임을 갖고 조직했다.

이들은 일본 귀환 30년이 지난 1974년 2월 전국대회를 열고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평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전국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남평에서 보낸 청소년기를 추억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1976년 4월 '남평시대' 창간호를 발간했다.

창간호에는 이들이 소장하고 있던 남평의 옛 사진과 1호부터 33회까지의 졸업사진, 책 발간을 위해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나주로 와서 촬영한 남평 사진 122장을 비롯해 졸업생 26명이 남평에 살던 당시 소회를 기록한 글이 담겨 있



47년만에 번역돼 출간된 '남평시대'.

다. 이들 일본인 이민자 자녀는 그후 매년 남평 방문단을 구성해 나주를 방문하고 지금은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 지방 객사 중 최대 규모인 금성관(錦城館) 등을 관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남평 방문 행사는 1980년대 들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여정 나주문화원장은 "남평시대"는 비록 남평 소학교를 다녔던 일본인에 의해 쓰여진 책이지만 1910년부터 1940년대까지 나주 남평의 역사를 보충하고 정리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딛고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이 남긴 남평시대 책에 실린 옛 남평군 객사인 영평관, 동헌인 남취당 모습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진 자료로 평가받는다.

윤 원장은 "남평시찰단 환영회 문서, 영산포 일본인 이주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한글 번역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본어로 쓰인 '남평시대' 창간호는 남평주조장 주인인 윤태석씨 소장자료로 한국학호남학진흥원이 기탁 받아 보관·관리하고 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곡성군,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운영

곡성군은 거동이 불편한 가구와 복지혜택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찾아가는 '2023년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농기계 수리, 한방진료, 전기안전 점검, 이동빨래방, 칼같이, 맞춤형 상담, 여성취업상담, 방역소독서비스, 자활취업상담, 주택소방안전점검, 아동학대예방 등 총 1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곡성군청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다림돌 봉사단'이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며 노후 수도꼭지 교체작업도 진행한다.

곡성군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매주 목요일에 11개 읍·면 30개 마을을 순회할 계획이다. 곡성=김대영 기자

국립 전남 호국원 유치TF구성 장흥군, 부군수 단장 등 구성

장흥군은 국립 전남 호국원 유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TF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TF회의는 전남 호국원 조성을 위한 부서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11개 부서 27명으로 구성된 TF는 인허가 절차 및 관련법 검토와 주변 기반시설 구축 등 중장기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장흥에 호국원이 건립되면 광주·전남권 유족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전남권 외 타지역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 것으로 장흥군은 보고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구례군,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구례군은 구례 5일 시장과 공영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청정구례'의 미래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구례군 제공

전자 투표 시스템 첫 도입

구례군의회, 안건 19건 처리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가 올해 처음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표결에 사용한다.

5일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2~9일 제 298회 임시회를 열어 올해 첫 추경 등 안건 19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질의 응답을 가미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구례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의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례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구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회기중 처리한다.

유시문 의장은 "의회는 기록표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표결 시 전자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함평축협 "한우 소유권 개인에 이전? 어불성설"

"축협보상금 받으려 꼼수" 보도 "이렇게 정보만 수정했을 뿐 축협 위상 실추·수사 의뢰"

함평축협이 최근 인터넷 매체에서 내보낸 한우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 자 축협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 유포자 등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 이력제 정보만 농가로 수정했을 뿐 소유권을 넘긴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5일 함평축협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매체에 '한우 100여마리 소유권 이전 꼼수'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축협 측은 "사실관계가 아닌 보도로 축협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에서 '축협조합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농민이 축협 소유 한우 110마리를 위탁 받아 사육 중이었는데 지난 2020년께 한우 소유권이 축협이 아닌 위탁사육 중인 농민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고 그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축협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개인한테 소유권을 가짜로 넘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함평축협은 조합원 농장에서 위탁 사육되던 함평축협 소의 이력제 정보만 농가로 수정했을 뿐 소유권을 넘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함평축협은 보도에 나온 현 조합장과 위탁농가와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위탁농가는 현 조합장이 취임 전인 지난 2017년부터 축협과 한우위탁사육 계약

을 체결해 지금까지 위탁사육 중이라고 답했다.

함평축협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축산과학원 관련 보상'과 축협은 관련이 없다"며 "축협과 조합원의 명의를 추락시킨 관련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이력제법'은 지난 2018년 농식품부 '소 이력제 농장정보 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력제 시스템을 '가축의 소유'에서 지번 중심의 '농장' 단위로 정비하는 제도다.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을 '농장경영자'로 전산에 등록이 가능토록 개정한 것.

개정된 '축산물이력제법'은 재산평가수단이 아니라 그 농장에 소가 들어오고 키워지고 출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 함평=신재현 기자

곡성, 통일신라시대 조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알린다

곡성군은 오는 25일 태안사 일대에서 '천년고찰 태안사 문화재 바로 알기' 행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을 기원하고 지역 문화재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답사, 사진찍기, 퀴즈, 공연 등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태안사 8개 문화재를 둘러보고 팀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현존 최대 정동대바라가 공개된다.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 861년

적인선사 해철 스님의 입적 이후 행적을 추앙하고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승탑이다. 1963년 1월21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73호로 지정됐으며 곡성군은 지역 대표 문화재인 적인선사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학술대회와 발굴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올해부터 입학지원금 10만원 지급 나주시, 초등 신입생 대상

나주시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입학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세 아동은 총 1066명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10만원권 지류형 또는 모바일 나주시사랑상품권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초등생 입학지원금은 민선8기 임산·출산 지원 사업 확대와 연계한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새롭게 발굴한 보편적 복지 시책이다.

나주시는 3월 한 달간 초등학교를 통해 직접 신청을 받고 4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가정은 4월부터 6월까지 시청 교육지원과에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화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 지역소비 먹거리 선순환 구축

화순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화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추진된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교육청과 농축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7개 분야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먹거리 계획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신선·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꾀한다는 취지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먹거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먹거리 공급체계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오는 6월 총 4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화순=김선종 기자